



世宗特別自治市議會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Council

- 2018년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18. 12. 26.(수) ~ 2019. 1. 1.(화)
스위스 · 독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목 차 |||

I. 연수개요	2
II. 연수 주요일정	3
III. 연수자 명단	4
IV. 방문국 현황	5
V. 주요연수 내용	11
1.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11
2. 도시재생 현장 견학	16
3.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19
4. ZAUGG(스위스 제설업체) 방문	23
5. 독일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서 방문	26

- 2018년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I 연수개요

□ 목 적

- 유럽 선진의회 및 시설 등을 시찰 지방자치제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 도모

□ 기 간 : 2018. 12. 26.(수) ~ 2019. 01. 01.(화) / 5박 7일

□ 연수지역 : 스위스 (취리히, 글라루스, 에기월)
 독 일 (프랑크푸르트)

□ 연 수 단 : 34명 (위원장 15명, 시·도의회 17명, 사무처 2명)

□ 주요기관 방문 및 시설견학

국 가	기 관 및 시 설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블로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ZAUGG (제설업체) 취리히 시프바우(도시재생 현장)
독 일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 연수 주요내용

- 스위스 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문화, 제설관리 등 선진 시스템 벤치마킹
-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업 기업 지원방안을 위한 우수사례 기관 방문
-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II

연수 주요일정

일 자	도 시	시 간	내 용	비 고
12.26.(수)	인 천 취리히	11:25 18:40	인천국제공항 출발 스위스 취리히 공항 도착	
12.27.(목)	글라루스 취리히	10:00 15:00	글라루스 의회 방문 - Landammann Dr. Andrea Bettiga(주지사), Landratspräsident-Stv. Dr. Peter Rothlin (주의회 부의장), Ratsschreiber lic.iur. Hansjörg Dürst(주의회 운영위원장 겸 주 정부서기), Fridolin Hauser(전 시장) 면담 시프바우 폴스 임바독트 방문(도시재생 현장) - Zurich West Tour Manager, Ms. Elisabeth Brem 설명	
12.28.(금)	취리히 에기윌	10:00 15:00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 Crypto Valley Zug CEO: Mr. Ruch 면담 ZAUGG(제설업체) 방문 - Zaugg AG Egiwill CEO, Mr. Hans Greter 설명	
12.30.(일)	바젤 프랑크푸르트	10:00	스위스 → 독일(프랑크푸르트) 이동	
12.31.(월)	프랑크푸르트	10:00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 - Old Timer CEO, MR.Herr Johl 설명	
2019.1.1.(화)	인 천	19:30 13:55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공항 도착	

Ⅲ

연수자 명단

□ 인 원 : 34명 (위원장 15, 시도의회 17, 사무처 2)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성 명	비 고
서울	위원장	서윤기	5급	박태헌	
부산	"	노기섭	7급	박민규	
대구	"	이만규	4급	박재봉	
인천	"	노태손	-	-	
광주	"	이경호	7급	고윤호	
대전	"	남진근	7급	정헌학	
울산	"	안도영	4급	신정성	
			6급	박소정	
세종	"	이재현	7급	김승환	
경기	"	진용복	5급	한재홍	
			7급	윤종훈	
강원	"	원태경	5급	전혁찬	
충북	"	김영주	6급	전상권	
			7급	이충민	
충남	"	김형도	7급	이복남	
전북	"	김대중	5급	전용용	
			7급	김윤경	
전남	"	서동욱	-	-	
경북	"	박용선	7급	김재일	
사무처	-	-	5급	이학규	
	-	-	6급	김효정	

IV

방문국(도시) 현황

□ 스위스

수 도	베른	
인 구	860만 8,259명	
면 적	41,284km ²	
주요민족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인	
주요언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종 교	카톨릭(48%), 기독교(44%), 기타(8%)	
화폐	프랑(CHF)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예 등 스위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 지리적 측면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 공국, 남쪽으로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는 남북길이는 약 225km이며, 동서 최대폭은 약 336km이다.

국토의 1/4이 높은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력 이외의 다른 천연자원은 거의 없다. 스위스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진다. 쥐라 산맥은 스위스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원지대이다. 미텔란트는 도시화된 부유한 농업 지역이다. 알프스 산맥은 높이 솟은 바위산, 깊은 골짜기, 거대한 빙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사회, 경제적 측면

인종은 주로 독일인·프랑스인·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망슈어이나, 로망슈어는 일부 지역에서만 쓰인다. 주요 종교는 로마 가톨릭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이다. 화폐단위는 스위스프랑(CHF)이다.

세계 주요금융 중심부 중 하나인 스위스의 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은행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산업으로는 시계·정밀기계·기계·화학 산업 등이 발달했다. 관광업과 농업 또한 중요산업에 포함된다. 주요농산물로는 곡류·사탕무·과일·야채·유제품·초콜릿·포도주 등이 있다. 다양한 인종 집단, 종교, 언어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여러 종족·종교·언어를 극복하여 관습의 통일을 이루었고 약 7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다.

○ 정치적 측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4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연방 (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 (Gemeinde)정부 등 총 3단계로 분산 위임 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시·군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 업무 조정 및 감독에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스위스 국민은 투표로 매 4년마다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의회는 상원 (Staenderat), 하원 (Nationalra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은 스위스 전체 인구를, 상원은 연방정부의 각 칸톤을 대표한다. 하원 의석수 (총 200석)는 칸톤 내 인구수에 비례하는 한편, 상원의 경우 칸톤 크기에 상관없이 총 2개의 의석 수를 보유하며, 반 칸톤의 경우에는 1개의 의석수를 갖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칸톤도 상원 의석이 보장되며, 스위스 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원제 의회제도는 모든 투표권자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과 모든 칸톤들 또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의 지방정부는 총 26개 주(Kanton) 및 2,842개의 시·군(Gemeinde)로 구성되는데 각 주는 주 헌법, 주 의회, 주 정부 및 주 법원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군은 주 법규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 이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가진다. 지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위임하는 사항, 거주민 등록, 민방위, 학교, 복지, 에너지, 도로건설, 지역환경관리, 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 역사적 측면

B.C. 5세기경 켈트족의 한 갈래인 헬베티아족이 스위스에 정착했다. 이들은 B.C. 1세기 중반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에 대패한 뒤로 급속히 로마화 됐다. 5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 서부 지역에 부르군트족, 동부 지역에 알라만 족이 정착했다. 부르군트족은 라틴화 되었고, 알라만 족은 게르만 색채를 유지하여 언어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중세에 와서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배출됨에 따라 스위스의 자치권은 위축되었다.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현재의 수도 베른에 모여 자치 보존을 위해 영구 동맹을 맺은 게 스위스 연방의 기원이며, 이 동맹에 가담하는 수가 늘어났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1499년 스위스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고, 바젤 조약에 따라 스위스는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영구중립국이 되었고, 그 후 파리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세기에는 스위스 최초로 중앙 정부가 들어섰지만, 힘은 여전히 각 주의 정부보다 약하다. 스위스에서는 1971년까지도 여성에 대한 투표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1971년에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 취리히

위 치	스위스 북부 취리히 주	
인 구	341,730명	
면 적	87.88km ²	

취리히는 스위스 제1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과 연결되는 철도가 발착하는 곳이며, 스위스에서 가장 큰 국제 공항인 취리히 클로텐 국제 공항이 자리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또한 취리히는 아름다운 취리히 호와 리마트 강이 자아내는 목가적 풍경과 대도시의 현대적 느낌, 구시가지의 중세풍 건물들이 연출하는 고풍스러움을 두루 갖춘 유럽 굴지의 관광 도시로서도 알려져 있다.

○ 글라루스

위 치	스위스 동부 글라루스 주	
인 구	12,512명	
면 적	103.7km ²	

주도는 글라루스이며 린트 강의 상류계곡에 위치한다. 주민은 주로 독일어를 쓰며, 2/3 정도가 개신교도이다. 주요 산업은 섬유·가구·담배 등이다. 해마다 고대 직접민주제의 하나로 주의 최고 의결기구인 란츠게마인데가 열린다.

□ 독일

수 도	베를린	
인 구	8,229만명	
면 적	357,104km ²	
주요민족	게르만족(92%), 터키인(2%), 기타	
주요언어	독일어	
종 교	로마카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교	
화폐	유로(EUR)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 지리적 측면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라인강·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 사회, 경제적 측면

국민의 대다수가 게르만계이고, 공식 언어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은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으로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G8,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세계 무역 기구,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다.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경제의 힘은 주로 제조업에서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주요 산업 중심지는 서부의 루르 계곡이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석유제품, 강철 주괴·주형 제품,

압연강철, 선철, 시멘트, 석탄·석유 가스, 화학약품·수지·플라스틱, 비료, 자동차·철도기관차·차량·선박, 가전제품, 합성·면·모 섬유와 직물, 기계류·수공구·섬유기계·농기구·건축장비·엘리베이터, 시계류·카메라·전자제품 등이 있다.

전체 산업체의 가운데 일부 광산·철강·석유가공·자동차 제조부문의 업체들만 고용 규모가 500명을 넘을 뿐이며, 절반 정도는 고용 규모가 50명에도 채 못 미치는 중소기업들이다.

○ 역사

독일은 중부 유럽의 게르만 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843년 동프랑크 왕국으로 성립하여 962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전하였으며,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하여 통일되어 독일 제국이 완성되었다. 그 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패배로 1949년 독일 민주 공화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 10월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 프랑크푸르트

위 치	독일 중서부 헤센 주	
인 구	701,350명	
면 적	248.3km ²	

라인 강의 지류인 마인 강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이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기 찬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현대와 과거의 적절한 조화와 다양한 박람회 등을 통해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의 중심지답게 유럽 중앙 은행을 비롯해 많은 은행이 있으며, 괴테가 태어난 문학의 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도서전이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1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27.(목), 10:00
- 면담자 :
 - Landammann Dr. Andrea Bettiga(주지사)
 - Landratspräsident-Stv. Dr. Peter Rothlin(주의회 부의장)
 - Ratsschreiber lic.iur. Hansjörg Dürst
(주의회 운영위원장 겸 주 정부서기)
 - Fridolin Hauser(전 시장)
- 방문내용 : 직접 민주주의 운영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글라루스 의회 설명

- 스위스 26개의 칸톤(지방자치단체) 중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두 곳이며 그중 방문기관인 글라루스에서는 1년에 한번 5월 첫째주 일요일에 투표자들이 야외에 모여 주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의제를 거수로 표결하는 야외의회 “란츠 게마인데” 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 대부분의 칸톤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글라루스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일년에 한번,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활 정치의 장’ 으로 평가받는 800년 역사의 의사 결정 시스템임

- 주민들은 이곳에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대중교통 요금 문제, 예산안 심의, 세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며, 작게는 마을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문제까지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내림
-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 주민 4만여명 중 6천명 정도 투표에 참가함. 60명 의원 중 10명이 찬성하면 안건 상정하며, 의원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하며 봉사적 성격을 가짐
- 보통 연간 10건 정도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안건마다 10여명 이내의 찬반의견 표명 후 의결, 전에 의결했던 간접흡연 규제 법안 제정의 경우 주민투표 거치는 등 2년이 소요되었음

□ 질의 및 답변

- (Q1)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함. 게마인데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 (A) 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60명의 칸톤 의원 가운데 1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게마인데를 통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Q2) 글라루스 인구가 3만 8천명이고, 이 가운데 유권자 수는 약 2만여명 정도라고 하는데, 게마인데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저 유권자 수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 (A) 게마인데 성립을 위한 최저 참가자 제한은 없다.

- (Q3) 매년 게마인데에 상정되는 안전이 약 10여건 정도라고 들었다. 시간적으로 매 안전에 대해 무제한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찬반의견 표명을 위한 자유토론 형식은?
 - (A) 각 안전마다 10여명 내외의 찬반의견을 듣는다. 앞서 이미 제기된 의견과 같은 의견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재량으로 토론자 수를 조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Q4) 소개된 게마인데 영상을 보니 경찰외에 군인이 동원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데, 군대가 게마인데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 (A)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경찰력만으로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군대가 함께 동원되고 있다. 참고로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2년 연속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연령(18~34세)에 도달한 병역 의무자의 경우 18주에서 21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에 매년 19일씩 6회 소집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게마인데에 동원된 군인들도 본인의 복무시기가 겹치는 경우 질서유지를 지원한다.

- (Q5) 칸톤의회 소속 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 (A) 주지사를 제외한 의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주민에 대한 봉사 대가로 회의시 150CHF를 지급하고 있다. 주지사와 같은 직업정치인에게는 연간 20만 CHF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방의원의 경우 칸톤의원과 비교해 약 2배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느낀점

-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란츠게마인데를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대신 영상으로 본 란츠게마인데는 주민 수천명이 모인 광장에서 어느 누구나 의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과 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비밀선거를 위한 전자투표나 종이투표가 아닌 거수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음
- 스위스는 4개의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고, 종교도 구교와 신교로 양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국민 통합을 잘 이뤄내는 국가 중 하나인 비결은 바로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다시 말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있다고 보임

□ 시사점

- 우리나라와 같은 국토와 인구 규모에서 란츠게마인데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적극 참여하는 주민이 있기에 가능하듯이 정책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예산 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같은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와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2018년도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시행 중으로 주민에게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마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시민추천제를 시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음

《참고》 세종시 주민참여 확대 사례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

- (목적)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함으로써 마을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현황) 2018. 7. 조치원읍 / 2018.12. 한솔동, 도담동, 연서면, 전의면
- (주요내용) 해당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주민(20~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자(공무원)를 면접(심의)·평가하여 1명을 추천하고, 이를 시에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전보 요인이 발생하는 모든 읍면동장에 대해 시민추천제를 시행 예정



▶ 전의면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 개최

□ 현장 사진



▶ 글라루스 의회 내부



▶ 환영 인사



▶ 글라루스 의회 설명 청취



▶ 질의 답변



▶ 란츠게마인데 홍보 영상 시청



▶ 기념사진 촬영

2 도시재생 사례 현장 견학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27.(목), 15:00
- 면담자 :
 - Zurich West Tour Manager, Ms. Elisabeth Brem
- 방문내용 : 스위스 취리히 도시재생 성공사례 설명

□ 도시재생 사례 설명

- 시프바우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취리히 웨스트에는 조선소가 있던 곳이었으나 영업을 중단한 조선소 건물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으로 취리히 시가 2000년대 들어 문화예술·상업지구로 재개발하였음
- 그 외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비누고양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공장이전 등으로 방치된 슬럼지역들이 도시재생 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였음
- 예전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바우는 ‘샤우슈필하우스’ 라는 공연전용 극장으로, 제철회사 주조 공장이던 곳은 ‘폴스5’ 라고하는 식당과 전시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옛 양조장은 미술전 시장으로 조성함. 건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리모델링으로 노출된 배관파이프나 녹슨 철근 같은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음
- 입주한 상점들 대부분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괜찮은 편임

□ 느낀점

-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한 플스5는 최근에 지은 건물처럼 보일 정도로 외부 디자인이 뛰어났고, 철도 아래 아치 공간에 만들어진 임비아дук트는 문화, 상업용도의 공간으로 재개발한 곳으로 쓸모 없는 공간을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이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점이 인상 깊었음
- 30년 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었던 도시재생사례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시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음

□ 시사점

- 스위스의 시프바우, 플스5, 임비아дук트 등 20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된 것처럼 도시재생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물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그 지역에 특별한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현재 우리시는 행복도시 건설지역인 신도시 지역 조성을 기반으로 인구 증가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원도심 조치원 지역과 주변 농촌 지역은 인프라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어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도시재생사업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시는 국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으로 그린(Green)전의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위스의 도시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취리히 시를 모델로 하여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활력소가 되고, 세종시 건설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세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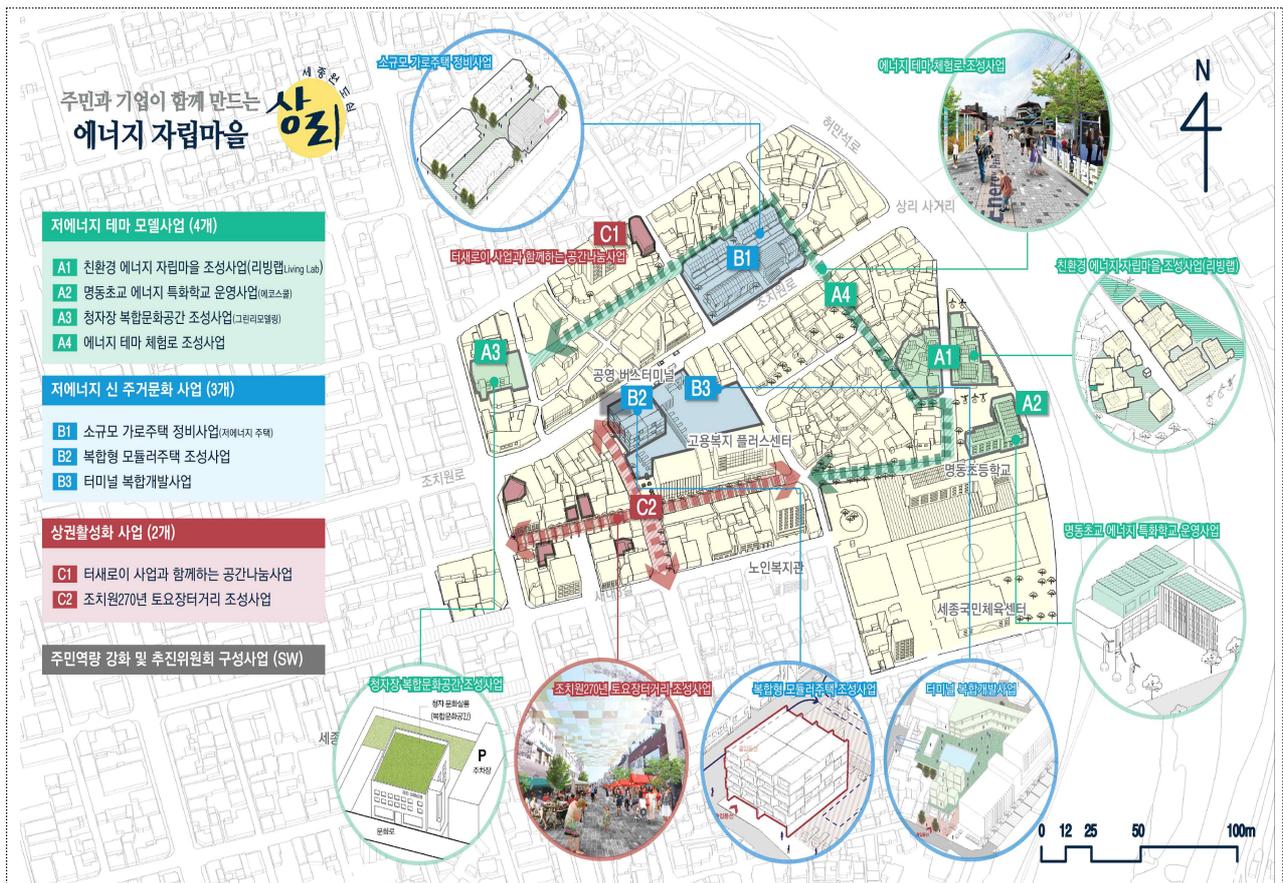
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목적) 조치원역 주변 유희부지를 활용한 경제·문화거점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업기간) '18.1월 ~ '22.12월(5년간)
- (추진현황) 사업선정('17.12월), 선도지역지정('18.4월), 활성화계획승인('18.8월), 현장지원센터 설치('18.11월), 토지매입('18.12.21 / 7,461㎡, 매입비 35.3억)
- (위치/면적)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 / 면적 200,203㎡
- (총사업비) 360억원(국비 180억원, 시비 180억원)
- (사업 현황도)



2.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명)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 (사업목표) 저에너지테마 모델사업, 저에너지 新주거 문화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 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추진현황) 도시재생대학 운영('17.'18년), 공모사업 평가('18.7~8월), 사업선정('18.8월), 주민공청회('18.10월), 의회 의견청취('18.11월), 선도지역지정('18.12월)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국토부가 평가·선정하는 중앙평가사업)
- (위치·면적)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96일원 / 145,000㎡
- (총사업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년)
- (사업 현황도)



3.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 (사업명)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
- (사업목표) 입지적 특성 및 지역 내 자원인 조경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기초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 (추진현황) 도시재생대학 운영('17-'18년), 공모사업 평가('18.7~8월), 사업선정('18.8월), 주민공청회('18.10월), 의회 의견청취('18.11월), 선도지역지정('18.12월)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광역자치단체가 평가·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
- (위치·면적)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192-1번지 일원 / 152,000㎡
- (총사업비)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 (사업기간) 2019~2022년, 약 4년간
- (사업현황도)



□ 현장 사진



▶ 도시재생 설명 청취



▶ 도시재생 설명 청취



▶ 도시재생 사례 내부 관람



▶ 도시재생 사례 건물 모형 관람



▶ 도시재생 사례 내부 관람



▶ 도시재생 사례 내부

3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28.(금), 10:00
- 면담자 :
 - Crypto Valley Zug CEO: Mr. Ruch
- 내 용 :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 유치, 지원 등

□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설명

- 스위스 zug는 2013년부터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크립토밸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스위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0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zug지역에 약 400여 업체가 크립토밸리 LAB을 형성하고 있음. 2013년 이더리움과 모네타스가 주크에 회사를 세울 때 스위스 정부의 지원과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인큐베이션, 자금지원 등으로 이 도시는 블록체인의 성지가 될 수 있었음
- 이곳에서는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합법으로 블록체인 기업 사업자에게 정부가 공간을 대여해주는데, 월 20만원만 내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함. 이곳 랩스는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인 크립토 밸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서 크립토 밸리가 자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스위스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속적 관심을 가져준 덕분임

□ 느낀점

-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홍역을 앓았던 우리나라는 규제를 강화하며 금지하고 있는 반면,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장려를 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크립토펠리, 스위스의 작은 도시 주크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시사점

- 스위스를 제외하면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 긍정론 만큼이나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가상화폐공개(IOC) 규제로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변화가 빠른 현대 산업 사회에서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절실하다고 보임
-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보험 등 산업의 전 분야로 확대해 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정성과 보안 요소 등의 잠재력으로 전자투표, 공과금 및 과징금 징수, 납세, 공공서비스 관련 시민행정 등 공공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우리시에서는 타시도 및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하여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세종시형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함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12대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과제

분야	제안기관	과제명
관광	전라북도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 설계시스템
계약	방위사업청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향(向) 해썹(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의료	서울의료원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인증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재난재해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전자문서	우정사업본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범사업
	국가기록원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근로계약서)
친환경	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통합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 현장 사진



▶ 블록체인 설명 청취



▶ 블록체인 설명 청취



▶ 블록체인 설명 청취



▶ 블록체인 설명 청취



▶ 사무실 내부 관람



▶ 사무실 내부 관람

4 ZAUGG(스위스 제설업체) 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28.(금), 15:00
- 면담자 :
 - Zaugg AG Eggiwil CEO, Mr. Hans Greter
- 내 용 : 스위스 제설 업체 운영 시스템 및 장비관리 등

□ ZAUGG(제설업체) 설명

- 자우그는 유럽에서 인정받는 제설장비 전문 생산 강소기업이며, 고객이 원하는 차량에 제설관련 장비를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함
- 당초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출발했으나,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여 현재 스키장, 골프장은 물론이고, 주요 도로와 공항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제설장비를 맞춤 생산하고 있음
-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요구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Eggiwil 및 Schüpbach의 작은마을에서 약 13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연간 800대의 다양한 제설장비를 생산하며 4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고, 연 매출 규모는 한화로 약 650억원 수준임
-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ZAUGG Pipemonster가 장착된 수퍼 파이프 스노우보드장을 구성하는데에 일조함

□ 느낀점

- 제설장비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인 ZAUGG 업체가 당초 농기계 생산으로 출발했다는 점과 한적한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기존 제품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이 연구하고,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 점이 현재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시사점

- ZAUGG 업체에서는 젊은 인력의 충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직업 훈련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있는 점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작은 업체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기술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있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지역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고자 지역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 우리시 지역우수기업 육성사업 지원 사례



※ 5~10개 선정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1社)

□ 현장 사진



▶ 공장 내부 전경



▶ 공장 내부 전경



▶ 업체 설명 청취



▶ 업체 설명 청취



▶ 업체 설명 청취



▶ 기념 촬영

5 독일 올드 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31.(월), 10:00
- 면담자 :
- Old Timer CEO, MR.Herr Johl
- 내 용 : 문화와 역사가 합축된 비즈니스 모델 자동차 거래 등

□ 개요

- 올드 타이머 자동차 거래소는 9,000㎡의 면적 건물 내에서 경매 및 전시장을 운영하며 고전자동차 등 약 150대 이상의 차량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있음
- 47개 업체가 조합형태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로 법률, 부품, 유지보수 도색업체 등이 상주해 있으며, 고가의 명품 올드카에 각종 스토리를 담아 자동차의 역사와 감성을 함께 거래하고 있음
- 차종은 일반 세단에서 스포츠카까지이며 람보르기니처럼 희소성이 강한 차량은 최근 생산되는 신종차량이라도 관리보수를 하며 가치 사슬을 창출하고 있음

□ 느낀점

- 차량을 건물 밖이 아닌 내부에 전시하여 자동차 거래소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보기 드문 많은 종류의 클래식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 독일 자동차의 역사 박물관처럼 느껴졌음
- 자동차를 매매하고,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닌 보험 회사, 시트 커버 제작 업체, 오디오 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 독특했고, 일반 자동차 거래소가 아닌 문화와 역사를 상품과 같이 판매하는 신개념의 거래소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시사점

- 국내 자동차 분야는 선진화로 접어들고 있으나, 그 중 중고차 시장은 주행거리 조작, 허위 및 미끼 매물 등 거래 불투명으로 인해 후진적이고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의 신뢰받는 자동차 거래소는 시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임
- 올드 타이머 자동차의 엄청난 가격은 클래식 명차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점을 착안하여 우리시에서도 자동차 사업 외에 이와 같은 문화와 역사를 상품에 결부하여 같이 판매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사진



▶ 자동차 거래소 내부 관람



▶ 자동차 거래소 내부 관람



▶ 업체 설명 청취



▶ 업체 설명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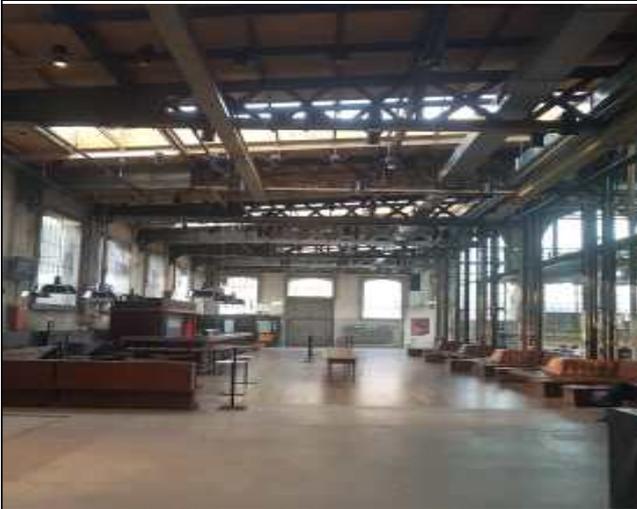
기타 주요 활동 사진



▶ 글라루스 의회 방문



▶ 글라루스 의회 방문



▶ 시프바우 방문



▶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 ZAUGG 업체 방문



▶ 올드 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